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동물과 식물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하이브리드 이미지

- 본인 작품 중심으로 -



2016년
HANSUNG
UNIVERSITY

한성대학교 대학원

회화과

현대미술전공

김재웅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허은영

동물과 식물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하이브리드 이미지

- 본인 작품 중심으로 -

Hybrid images that form from
combining flora and fauna

2015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회화과

현대미술전공

김재웅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허은영

동물과 식물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하이브리드 이미지

- 본인 작품 중심으로 -

Hybrid images that form from
combining flora and fauna

위 논문을 미술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회 화 과

현 대 미 술 전 공

김 재 웅

김 재 응의 미술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 0 1 5 년 12 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동물과 식물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하이브리드 이미지

한성대학교 대학원
회 화 과
현 대 미 술 전 공
김 재 웅

자연은 모든 생물에게 있어 죽음과 생명의 공간이 되어왔다. 자연의 순환과정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생물의 물리적 힘으로는 자연현상을 극복할 수 없었다. 따라서 생물들은 자연에 적응하기 위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진화하였다.

고대 생물부터 오늘날의 다양한 생물들은 진화를 통하여 자연환경에 적응할 수 있었으며, 생존에 필요한 신체적 기능을 진화 과정을 통하여 얻게 되었다. 육식동물은 사냥에 적합한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어류와 양서류는 수중 생활에 적합한 아가미와 지느러미와 같은 신체적 변화들은 진화 과정을 통해 동물들의 생존 방법에 따른 신체적 기능을 가진 대표적 사례이다. 동물들의 신체적 기능은 고대인들에게 있어 두려움과 동경의 대상이 되었으며, 인간적 한계를 벗어나 심리적·정신적 유토피아로 비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가 되었다. 이러한 고대인들의 염원은 동물의 신체적 기능을 인간과 동물이 결합한 반인반수를 창조해냈다. 반인반수의 형상은 동물의 신체적 기능과 동일시되기를 원했던 고대인들의 염원을 볼 수 있다.

동물의 신체적 기능을 닮고자 하는 대한 고대인들의 염원은 연구자의 작업 소재가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과거부터 오랜 시간 동안 지속 되어왔던

고대인들의 염원에 근거하여 상상 속 이미지를 소재로 하여 본 논문을 고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신화에 등장하는 반인반수 형상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하이브리드 이미지’를 구현하고자 했다. 먼저 신화 속에 등장하는 반인반수 형상이 어떤 의미와 상징성을 담고 있는지 살펴 본 다음, 작업에 근간이 되는 상상의 동물과 식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대와 문화에 따라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분석한 내용에 근거하여 연구자는 식물과 동물을 조합하여 ‘하이브리드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업에서 드로잉으로 나타난 ‘하이브리드 이미지’들은 식물과 동물의 형상이 결합되어 하이브리드 성향을 지닌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연구자는 ‘하이브리드 이미지’를 통해 현실에서 벗어나 인간적 한계의 범주를 이탈하고, 초월적 존재로 도약을 꿈꾸는 인간의 염원을 작업을 통해서 ‘하이브리드이미지’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하이브리드 이미지’는 연구자에게 있어 인식의 틀과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었다.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 본 연구자의 작업에서 등장하는 ‘하이브리드 이미지’는 추상적 형상을 가지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작업에 근간이 되는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연구자의 작품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보다 확장된 생각과 시각을 통하여 ‘하이브리드 이미지’의 작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주요어】 하이브리드, 신화, 이미지, 식물, 동물

목 차

I. 서 론	1
1.1 연구 목적	1
1.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2
II. 작품의 배경	3
2.1 하이브리드의 이론적 개념	3
2.2 하이브리드의 상징성	5
1) 하이브리드의 상징적 의미	5
2) 식물의 상징성	8
III. 작품 분석	10
IV. 결 론	22
참고문헌	24
ABSTRACT	26

참 고 도 판 목 록

<참고도판 1 > 이집트 신화에 등장하는 반인반수 신	7
<참고도판 2 > 라이칸	7



작 품 목 록

<도판 1 > 미지의 풍경	10
<도판 2 > 좀비 꽃	12
<도판 3 > 세이렌	14
<도판 4 > 이상한 풍경	16
<도판 5 > 플로피쉬	18
<도판 6 > 눈꽃	20



I. 서 론

1.1 연구목적

지구 상의 모든 생물은 자연에 적응하기 위해 진화한다. 진화란 생물이 자연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으로 몸의 구조나 형태를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후대들에게 그 형질을 유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생물들은 진화 과정을 통하여 자연환경에서 먹이를 찾고 포식자를 피하는데 유리하도록 진화하였다. 고대 생물부터 오늘날의 다양한 생물들은 진화 과정을 통해 생존에 필요한 신체적 기능을 얻게 되었다. 사자와 호랑이 같은 육식동물들은 사냥에 적합한 이빨과 발톱을, 독수리와 매 같은 맹금류는 하늘을 자유로이 날 수 있도록 큰 날개와 예리한 시력과 같은 결과들은 진화 과정을 통해 동물들이 얻은 신체적 기능의 대표적 사례이다.

동물들의 신체적 기능은 인간에게 있어 두려움의 대상이자 동경의 대상이 되었다. 동물의 신체적 기능과 동일시되기를 원했던 인간들은 다양한 동물의 형상을 조합하여 기묘하게 생긴 상상의 동물들을 만들었다. “대개 이 상상의 동물들은 인간의 한계를 훨씬 능가하는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이 동물들을 창조하면서, 이들을 우주 질서의 조화를 담당하는 신(新)의 영역으로까지 확장시켜, 인간적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하였다.”¹⁾ 이들의 형상을 통하여 인간은 인간적 한계를 초월하고 심리적·정신적 유토피아로 비상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상상의 동물들이 가지는 신화적 상징성은 본 연구자의 작업의 모티브가 되어 ‘하이브리드 이미지’로 표현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 논문은 상상의 동물들이 가지는 상징성과 의미에 근거하여 식물의 형상과 동물의 형상을 조합하여 하이브리드 이미지로 표현하고자 했으며, 본 연구자의 작품 분석을 통하여 작업 세계관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번 연구를 토대로 연구자의 작품을 정리하고, 작품 분석을 통해 작업 발전방향에 대하여 모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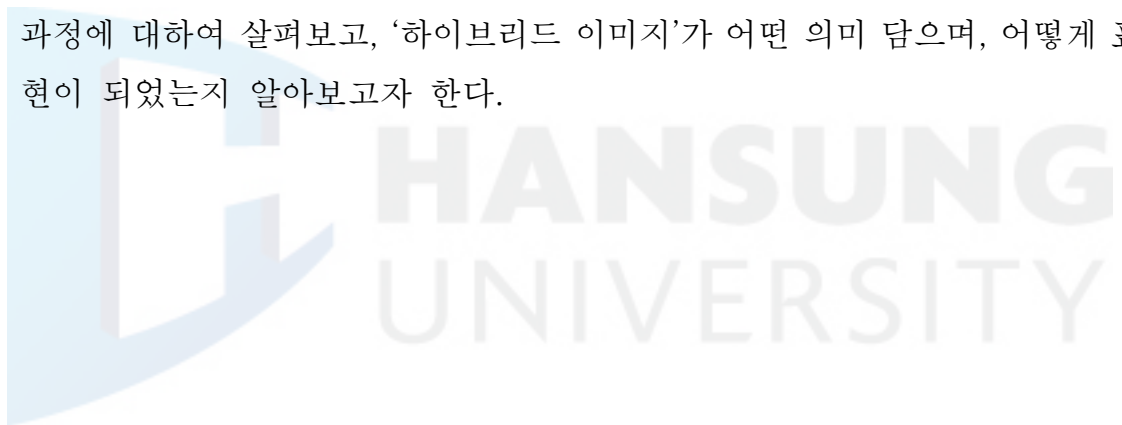
1) 윤열수. (2010). 『신화 속 상상동물 열전』. 서울: 한국문화보호재단, p.246.

1.2 연구방법 및 내용

본 논문을 통하여 본 연구자의 드로잉 작업에 나타나는 ‘하이브리드 이미지’가 어떤 생물의 형태와 습성이 조합되어 만들어지는지를 논하고자 한다.

‘Ⅱ. 작품의 배경’에서는 2가지의 소제목으로 나누었으며, 하이브리드에 관련된 학술자료 및 서적을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2.1 장 하이브리드의 이론적 개념’에서는 하이브리드의 이론적 개념을 살펴보고, ‘2.2 장 하이브리드 이미지의 상징성’에서는 ‘이집트 신화’와 대중문화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근거로 하여 ‘하이브리드 이미지’의 상징성과 의미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다음으로 ‘식물의 상징성’에서는 참고 서적을 바탕으로 하여 식물의 의미와 상징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Ⅲ. 작품 분석’에서는 연구자의 작품을 분석을 통해 작품의 형성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고, ‘하이브리드 이미지’가 어떤 의미 담으며, 어떻게 표현이 되었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II. 작 품 의 배 경

연구자의 작품에 드로잉으로 나타나는 ‘이미지’들은 식물과 동물의 형상을 조합하여 ‘하이브리드 이미지’로 만들어졌다. 이번 ‘작품 배경’에서는 연구자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식물’과 ‘동물’의 하이브리드 조합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먼저 하이브리드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다음, 신화와 민담에 등장하는 ‘상상의 동물 상징성’과 ‘식물의 상징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어떤 형상과 상징성을 담고 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2.1 하이브리드의 이론적 개념

오늘날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하이브리드의 개념은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말 그대로 뒤섞임을 뜻하며 ‘잡종/혼종/혼성’으로 번역된다. 이 말은 곧 서로 이질적인 것의 결합을 의미하며, 유전학자 멘델이 하이브리드 개념에 근거하여 세대가 짧은 생물을 실험하여 얻은 것을 계기로 18~19세기 생물학에 차용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²⁾ 이 용어는 이종교배에 의해 태어난 생물들을 통칭하는 말로써 사용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통적으로 ‘순수한’ 것에 가치를 두었던 문화적 분위기에 잡종은 그 가치를 부여받을 명분을 갖지 못 했다. 잡종 개념이 일상문화에서도 배척 받게 된 이유는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³⁾ 그러한 부정적 관념 때문에 하이브리드는 오랫동안 사용되기 꺼려왔다. 그러나 시간의 변화에 따라 하이브리드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었던 사람들의 인식은 바뀌게 되었다. 그 결과 오늘날에는 “‘혼성’ 내지 ‘혼합’이란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미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일찍이 생물학에서 시작하여 화학, 건축, 예술, 경제, 사회, 기술 등 제 영역에서 널리 사용된 이 개념은 21세기 전후로 해서 미디어의 기술 진화와 함께 훨씬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추세이다.”⁴⁾이렇듯 오늘날

2) 하이브리드 컬처 연구소 편저. (2008). 『하이브리드 컬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p.11.

3) 상계서, p.12.

4) 상계서, p.12.

하이브리드 현상은 의미를 확장하여 세계적, 문화적 현상으로 하나의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하이브리드 현상은 장르 간의 결합을 통하여 장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성능을 탑재하여 현대인의 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해주었으며,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새로운 장르로 자리 잡고 있다.

“오늘날 보편적 문화 현상으로 ‘하이브리드’의 문화 개념 외에도 개별적인 현상을 표현해 내는 개념들이 있다. 이를테면 퓨전(Fusion), 크로스오버(Crossover), 컨버전스(Convergence) 등이 그것이다. 이 개념들은 하이브리드와 마찬가지로 모두 영어를 음역 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것들이 합쳐져서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낼 때 사용되는 말이다. 이 점에서 각 개념들은 유사성을 보이기 때문에 명확한 개념적 구분이 쉽지 않고 사람들이 흔히 문화 현상을 설명할 때면 자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⁵⁾

크로스오버는 “여러 장르가 교차한다는 의미로 특히 재즈와 록, 팝 등 여러 가지 스타일의 음악을 혼합한 음악 연주 형식”⁶⁾을 말하며 이외에도 전자제품, 자동차와 같은 제품에서 사용되고 있다.

퓨전은 “라틴어의 ‘부어냄, 유출(fusio)’에서 유래한 말”⁷⁾이며, 서로 다른 것들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결과물을 통칭하여 퓨전이라고 한다. 퓨전은 오늘날 예술, 음식, 문화, 스포츠와 같은 대중문화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다.

컨버전스는 “일반적으로 ‘하나로 합친다’ 또는 ‘경계가 무너지면서 하나가 된다’는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종 제품 간, 비즈니스 모델 간, 산업 간 ‘결합’ 또는 ‘융합’의 의미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⁸⁾ 하이브리드와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것들을 합쳐져서 새로운 기능이나 성능을 창출해 낼 때 사용되는 말이다. 오늘날의 하이브리드 현상은 “테크놀로지 분야를 넘어 문화영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⁹⁾되었으며, 동·서양의 문화

5) 상계서, p.12.

6) 크로스오버. 『네이버 지식백과』. 검색일자: 2015. 11.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71048&cid=42028&categoryId=42028>

7) 하이브리드 컬처 연구소 편저, 전계서, p.13.

8) 컨버전스. 『네이버 지식백과』. 검색일자: 2015. 11.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63756&cid=42107&categoryId=42107>

9) 하이브리드미래문화연구 편. (2012). 『하이브리드 스펙트럼』.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p.67.

를 융합하여 새로운 시대 양식을 창출하였다.

2.2 하이브리드의 상징성

1) 하이브리드의 상징적 의미

자연은 모든 생물에게 있어 죽음과 생명의 공간이 되어왔다. 태풍, 홍수, 산사태, 폭설, 가뭄과 같은 자연현상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발생하였다. 반면 그러한 자연현상은 생물들의 생명과 직결되었다. 따라서 지구 상의 모든 생물들은 자연현상에 생존하기 위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서서히 진화하였다. 그리하여 생물들은 진화 과정을 통하여 서식환경에 알맞은 신체적 기능을 갖추 수 있었다.

육식동물은 큰 이빨과 발톱을, 맹금류는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을, 양서류와 어류는 물속 생활에 적합하도록 지느러미와 허파와 같은 신체적 변화들은 진화 과정을 통해 동물들의 생존 방법에 따른 신체적 기능을 가진 대표적 사례이다. 이 같은 동물의 신체적 기능은 인간에게 있어 두려움의 대상이자, 동경의 대상이 되었다. 나아가 인간은 동물의 신체적 기능과 동일시되기를 원했다. 동물의 신체적 기능을 닮고자 했었던 인간은 무수한 상상력을 통하여 동물들을 다양한 역할을 관장하는 동물로 표현하였다.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새들은 인간 세계와 천계(天界)를 연결하는 매개자로 여겨져 왔다. 예를 들어, 힌두신화에 나오는 비슈누 신의 신성한 바하나인 가루다는 때로 반은 독수리이고 반은 인간인 모습으로 묘사된다. 시베리아 에벡족의 샤먼은 영혼의 세계를 비행하고자 할 때면 나무로 조각한 네 마리의 새를 이용했다. 네 마리의 새란 악령들로부터 샤먼의 영혼을 보호하는 독수리, 무아지경의 상태에 빠진 샤먼을 인도하는 도래까마귀, 목적지까지 무사히 데려다 주는 백조, 치유의 힘을 지닌 딱따구리를 말한다.¹⁰⁾

10) 니콜라스 J. 손더스. 강미경 역. (2002). 『동물의 영혼』. 서울: 창해, p.50.

이 글을 통해 인간은 새를 다양한 역할을 관장하는 동물로 표현 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렇듯 동물의 형상은 인간의 상상력에 의해 인간적 한계를 뛰어넘는 존재로 표현되었다. 그리하여 인간은 동물의 신체적 기능에 대한 동경은 인간과 동물 또는 동물과 동물의 형상이 결합된 반인반수를 창조해냈다. 인간은 동물의 형상을 통하여 심리적·정신적 압박감에서 벗어 날 수 있었다.

동물의 형상은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과 결합된 반인반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반인 반수는 고대인의 상상력에 의해 탄생한 초현실적 이미지이지만, 실존하는 생명체처럼 살아 숨 쉬며, 자연에 대한 두려움과 인간의 한계를 해결해주었다. 반인반수의 형상은 시대가 변하면서 신비로운 존재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 같은 반인반수의 형상은 고대 이집트의 신화와 종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고대 이집트의 종교와 신화는 “저승세계에서의 삶을 믿는 것이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때문에 신화에서도 내세에 대한 사상이 크게 반영되어 있다. 그들의 내세관에서 알 수 있는 사후세계에 관한 안내서인 사자의 서(Book of the Dead)에는 동물과 사람”¹¹⁾이 조합된 반인반수가 나타난다. 초기 이집트 신화에 나타나는 반인반수들은 단순한 형상으로 표현되었다. “동물의 모습을 하고 있거나 동물의 머리 또는 간단하게 뿔을 가진 모습”¹²⁾으로 묘사되었으며 시간의 변화에 따라 인간의 형상과 결합된 한 반인반수로 표현되었다.

고대 이집트 신화에 등장하는 반인반수의 형상을 살펴보면, 태양의 신인 라와 호루스(Horus)는 매의 머리와 인간의 몸이 결합된 형상으로, 지식과 지혜의 신인 토트(Thoth)는 파오기 머리와 인간의 몸이 결합된 형상으로, 영혼을 인도하는 신인 아누비스는 자칼의 머리와 인간의 몸이 결합된 형상으로 표현되고 있다.

다양한 신으로 묘사된 이들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상상력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고대 이집트인의 삶과 신화의 근원적 의미를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열쇠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 차운수. (2013). 『신화를 모티브로 한 하이브리드 캐릭터 이미지 분석 연구』. 경기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40.

12) 베로니카 이온스. 심재훈 역. (2003). 『이집트 신화』. 서울: 범우사, p.35.

이처럼 신화 속에 등장하는 반인반수의 형상은 고대인의 삶에서 종교와 상징적 의미를 가졌다면, 현대인에게 반인반수의 존재는 현실에서 벗어나 쾌감과 짜릿함을 선사한다.



<참고 도판 1 > 이집트 신화에 등장하는 반인반수 신



<참고 도판 2 > 영화 '언더월드' (Underworld, 2003)

영화 ‘언더월드(Underworld, 2003)’는 반인반수를 다룬 대표적인 사례이다. 영화 속에서는 ‘라이칸(Lycan)’¹³⁾이라는 종족이 등장하는데, 낮에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보름달이 뜨는 밤이 되면 라이칸으로 변신하는 반인반수로 묘사되었다. ‘라이칸’의 변신하는 모습은 관객들에게 현실에서 느낄 수 없는 현실도피 적 쾌감을 선사하였다. 언더월드의 흥행은 같은 주제로 한 영화나, 게임, 소설로 제작되어 대중들에게 인기를 누렸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반인반수의 존재는 상상력을 자극하기도 한다. 반인반수는 고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염원을 담은 이 같은 반인반수들이 큰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이유는 인간의 현실 속 삶을 직관하는 동시에 인간적 한계 초월하여, 직면하고 있는 틀과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심리적·정신적인 위안을 준다는 점에 볼 수 있다.

이렇듯 하이브리드는 인간의 상상력과 시대의 변화에 의해 다채로운 형상의 상상의 이미지로 발전해 나갔다. 또한 인간에게 인간적 한계를 벗어나 심리적·정신적 유토피아로의 비상을 꿈꾸게 해주었다. 따라서 연구자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동물의 형상’은 ‘식물의 형상’과 조합되어 하이브리드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하이브리드 이미지’는 신화에 등장하는 반인반수처럼 현실에서 속박과 틀에서 벗어나 연구자에게 초월적 상상의 자유로움을 경험하게 한다.

2) 식물의 상징성

식물은 연구자의 작품에 등장하는 생물 중 하나로, 동물의 형상과 결합되어 ‘하이브리드 이미지’로 나타난다. 식물은 자연계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생물로 광합성을 통해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 살아간다. 식물은 인간에게 있어 친숙한 존재이며, 인간의 일상 속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그 예로 인도 위, 콘크리트와 블록 틈새에서 자라나는 질경이와 민들레는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식물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처럼 식물은 인간의 일상 속에서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며 인간과 공존하는 유기체이다. 이러한 식물의 모습은 인간의 상상에 의

13) 늑대인간

해 다양한 의미와 상징성을 가진 자연물로 표현되었다. 그중에서 꽃은 인간의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다채로운 색깔과 형태를 가지고 있다.

꽃은 “그윽한 향기로 인하여 그 존재의 신비스러움과 함께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고 윤택하게 만들어 왔다.”¹⁴⁾ 이처럼 꽃은 아름다움과 자연의 생명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물로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사랑받아왔다.

꽃은 아름다움, 화려함, 번영, 영화로움 등의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아름다운 여자나 좋은 일, 영화로운 일에 비유하여 어여쁜 여자의 얼굴을 (花容), 화안(花顔)이라 하고, ‘꽃 같은 시절’이라 해서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시기를 일컫기도 한다. 또한 경사스럽고 번영한 일이 있을 때에는 ‘그 집안에 꽃이 피었다.’, ‘웃음꽃이 핀다’ 하였고 과거에 장원급제한 사람에게 어사화(御賜花)를 내려 영화로움을 상징하기도 하였다.¹⁵⁾

꽃은 아름다움과 다양한 의미와 상징성을 반영하는 자연물로서 대중에게 사랑을 받았다. 꽃은 “숭배, 존경, 사랑, 친애의 표시로 전달되는 매개물에서부터 각종 생활도구와 공예품 등에 길상(吉祥)을 나타내는 존재로 시문(施文)되었고, 미술, 음악, 문학작품 등에 가장 즐겨 등장하는 소재 중의 하나로 애용되었다.”¹⁶⁾

연구자의 작품에 있어서 식물을 선택한 이유는 겉으로 보이는 연약한 모습과 달리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는 식물의 강한 생명력에서 또 다른 식물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식물의 모습은 연구자의 한정된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 상상의 자유로움을 경험하게 해주었다.

14) 구미래. (1992). 『한국인의 상징세계』. 서울: 교보문고, p.67.

15) 상계서, p.67-68.

16) 상계서, p.70.

IV. 작품 분석



<도판 1 > 미지의 풍경 90x72cm pen on canvas /2014

<도판 1 > 미지의 풍경

<도판 1 > 미지의 풍경은 식물의 질긴 생명력과 뛰어난 적응력에 근거하여 미지의 풍경을 표현한 작품이다. 길을 걷다 보면 콘크리트 틈바구니에 식물들이 자라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이외에도 담장 틈새, 지붕, 기둥, 인도에서 서식하는 식물을 흔하게 볼 수 있으며, 연약한 모습과는 다르게 이들은 끈질긴 생명력과 뛰어난 적응력을 바탕으로 척박한 도시환경에 적응하였다. 이러한 식물의 모습에서 미지의 풍경이라는 작업의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본 연구자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단순한 식물이 아닌 또 다른 생명체로 바라보게 되었다. 이들의 움직임은 마치 외계 생명체를 연상시킨다. 연구자는 식물에게 한정된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뱀의 형상을 결합하였다. 뱀의 형상을 결합한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식물의 모습처럼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하였다.

뱀은 매끄러운 비늘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지만 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생물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 본인의 하이브리드 이미지는 식물의 형상과 뱀의 형상이 결합되어 새로운 형상을 한 ‘미지의 풍경’으로 거듭난다.

미지의 풍경은 꽃과 잎사귀가 하나가 되어 유기적 형상을 하고 있다. 이 유기적 형상은 뱀의 비늘과 식물의 꽃과 잎을 조합하여 패턴 처리하였다. 이 패턴은 하나로 이어져 있지만 본인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각각의 형상에 검은색 볼펜과 연필을 사용하여 그라데이션을 주었다.

대부분 작품은 공통적으로 검은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인은 검은색을 통하여 카리스마 넘치는 생명체를 만들고자 했다.

<도판 1 > 미지의 풍경을 통해 본인은 현실 속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초월적 자유를 향해 비상하고자 하는 생명체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도판 2 > 좀비 꽃 90x72cm pen on canvas /2015

<도판 2 > 좀비 꽃

<도판 2 > 좀비 꽃은 콘크리트 틈새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민들레의 형상에서 영감을 얻어 작업하였다. 가냘프게 생긴 줄기와 노란색의 꽃을 가진 민들레는 인간의 일상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식물이며 심지어 아스팔트로 포장된 바다, 벽돌 담장 틈새와 같은 곳에서 자라는 민들레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추위를 잘 견뎌 낼뿐더러 생명력이 매우 강해서 뿌리를 토막내어 땅에 묻으면 거기서 다시 새싹이 트기 때문에 길가나 화단·화분”¹⁷⁾등에서 잘 자란다. 이런 민들레의 모습에서 공포영화에 등장하는 좀비의 형상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영화에 등장하는 좀비는 죽어도 밤이 되면 되살아나는 괴물의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그러한 좀비의 모습에서 민들레의 이미지를 생각하게 된다. 이런 민들레와 좀비의 모습에서 <도판 2 > 의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리하여 본 연구자의 상상 속에서 민들레의 가냘픈 형상과 좀비의 끈질긴 생명력을 조합하여 좀비 꽃을 만들게 되었다. 좀비 꽃은 갓난아기처럼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형상은 그로테스크 한 형상으로 변이한다. 이 같은 변이 과정은 척박한 환경에서 생존하고자 하는 식물의 투쟁의 몸부림처럼 느껴진다.

본 연구자는 작업 구상을 하면서 좀비 형상의 표현에서 느껴지는 그로테스크함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고민을 하던 도 중 파란색 볼펜과 검은색 볼펜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펜촉을 비벼서 사용함으로써 그로테스크한 느낌의 좀비 꽃을 표현할 수 있었으며, 화면에 크고 작은 좀비 꽃을 배치하여 점점 번져나가는 좀비 꽃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도판 2 > 좀비 꽃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기존에 본인이 작업에 사용했었던 패턴들은 딱딱한 모양에서 조금 더 유기적으로 변하게 되었다.

17) 김태정. (1990).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꽃 백가지』. 서울: 현암사, p.3.



<도판 3 > 세이렌 60x60cm pen on canvas /2015

<도판 3 > 세이렌

식물의 변화무쌍한 생명력과 적응력은 본 연구자의 상상력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작업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상상력으로 인하여 생물이나 사물이 가지는 기존 이미지에서 벗어나 다른 것으로 바라보게 되었으며 하이브리드 이미지 표현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척박한 도시환경에서 서식하고 있는 식물을 찾아다니다가 공터에서 자라고 있는 질경이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 공터는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흙과 양분도 없고, 먼지만 수북이 쌓여 있지만 이런 곳에서도 그들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질경이는 토양을 가리지 않고 잘 자라는 식물이며,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마차 바퀴나 사람의 발에 짓밟히거나 가축의 먹이로 수난 당하기 일쑤이지만 질경이는 끈덕지게 살아 번식한다.”¹⁸⁾

연구자는 질경이의 굳센 생명력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세이렌처럼 느껴졌다. 세이렌은 아름다운 여성 얼굴과 몸에 물고기의 꼬리를 한 반인반수로, 배가 지나갈 때마다 노랫소리로 유혹하여 선원들을 잡아먹는다.

<도판 3 > 세이렌은 질경이의 질긴 생명력에 근거하여 식물의 형상과 인간의 형상을 조합하여 만들었다.

18) 김태정, 전게서, p.274-275.



<도판 4 > 이상한 풍경 90x72cm pen on canvas /2015

<도판 4 > 이상한풍경

<도판 4 > 이상한 풍경은 만약에 식물이 다리가 달려 동물처럼 움직이면 어떤 모습일까라는 본인의 호기심에서 시작하였다. 물고기나 새들은 날개와 지느러미를 사용하여 자유롭게 이동하며 살아간다. 반면 식물은 한정된 공간에서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는 모습에서 본인은 식물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물고기의 몸과 지느러미를 달아 주고 싶었다.

연구자의 호기심은 후속 작품에서 식물과 동물의 합쳐진 하이브리드 이미지로 나타나게 된다. 작품에 나타나는 식물들은 물고기의 지느러미와 몸을 이용하여 한정된 공간에서 벗어나 초월적 자유의 세계로 비상하고 있다.

이 작품은 화면에 공간감과 물고기의 이동을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하여 물고기와 꽃을 아래에서 위로 배치하여 마치 새로운 곳을 향해 헤엄쳐 나가는 물고기처럼 보이도록 하고자 하였다.

이 작품은 축이 가는 제도 펜을 사용하여 작업하였으며, 물고기의 울퉁불퉁한 물고기 피부를 나타내기 위해 점묘법으로 물고기의 피부를 표현하였다.



<도판 5 > 플로피쉬 /33.4x24.2cm pen on paper /2015

<도판 5 > 플로피쉬

본 연구자는 생물에 관심이 많아 평소에 자연 다큐멘터리를 즐겨 본다. 그 중에서 물고기의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통해 일부 물고기는 인간처럼 알과 치어들을 극진히 돌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시클리드’는 독특한 방법으로 알과 치어들을 돌보는 물고기로, 치어들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입 안에서 품으며 돌본다. 이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치어와 알들을 돌보는 어미 물고기의 모습에서 작업에 구상될 ‘플로피쉬’의 형상이 떠올랐다.

<도판 5 > 플로피쉬는 기존의 ‘하이브리드 이미지’와는 다른 형상을 하고 있다. ‘플로피쉬’는 식물과 물고기, 새가 결합된 것으로 세 가지의 생물이 결합되어 있다. 이 작품에서 ‘플로피쉬’는 물고기의 몸통에 새의 발을 가지고 있으며 입안에는 식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도판 6 > 눈꽃 /33.4x24.2cm pen on paper /2015

<도판 6 > 눈꽃

대부분 식물들은 빛 에너지를 이용해 영양분을 만들고 산소를 대기 중으로 방출한다. 따라서 햇빛은 식물의 생존에 있어 필수적이다. “뿌리를 갖고 있는 것은 종류를 막론하고, 곁에서 함께 자라는 식물보다 더 크게 잘 자라려고 애 쓴다. 해가 비치는 열린 공간에 있는 잎들은 가능한 한 경쟁자의 앞으로 밀치고 들어간다. 심지어는 언제나 태양을 향하여 옆 식물에까지 기어 올라간다.”¹⁹⁾ 식물들은 눈이 없지만 본능적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을 향해 뻗어나가는 모습은 신비스럽게 느껴진다.

그러한 식물의 모습은 본 연구자의 상상에 의해 눈알이 달린 하이브리드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도판 6 > 눈꽃은 식물의 모습에 눈을 조합하여 만들었다. 유기적 형상을 표현하기 위해 사전으로 배치하였으며 '눈꽃'의 형상을 이동하는 생명체처럼 나타내기 위해 줄기와 뿌리를 구부러지게 만들었다. 줄기와 잎사귀의 억센 느낌을 나타내기 위해 굵은 펜촉의 볼펜을 이용하여 작업하였으며 눈동자는 자주색 볼펜과 검은색 볼펜으로 작업했다. 빛을 받아 반짝거리는 눈을 표현하기 위해 점묘법으로 눈동자를 묘사하였다.

19) 수잔네 파울젠. 김숙희 역. (2002). 『식물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서울: 풀빛, p.21-22.

V. 결 론

본 논문은 척박한 환경에서 서식하는 식물의 형상을 모티브로 하여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식물들은 인간의 일상 속에서 흔히 보는 생명체이지만, 다른 시선에서 접근하다 보면 그들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연약하게 생긴 이미지와는 달리 척박한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하여 살아가는 식물의 모습은 신비스럽고 경이롭기까지 했다. 그러한 식물의 이중적 모습은 연구자의 작품의 소재가 되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식물의 형상과 생명력에 근간을 두고, 식물과 동물의 형상을 조합하여 ‘하이브리드 이미지’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하이브리드 이미지’를 통해 심리적·정신적 위안을 받으며 현실에서 벗어나 시각적 유토피아로의 비상을 꿈꾼다. 유토피아에 대한 인간의 염원은 고대시대부터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 왔다.

유토피아에 대한 인간의 염원은 고대 신화에 표현된 반인반수의 형상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고대인들은 상상력을 통해서 인간의 형상과 동물의 형상을 조합하여 반인반수의 형상을 창조하였으며 기원과 시대적 배경에 따라 새로운 의미와 상징성이 부여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인반수의 형상을 통하여 고대인들은 인간적 한계에서 벗어나 유토피아로 비상하고자 하였으며, 현대인에게 현실에서 속박과 제약에서 벗어나 초월적 세계로의 자유를 상상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하여 신화에 등장하는 반인반수의 형상을 통하여 의미와 상징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하이브리드 이미지를 통한 시각적 유토피아로 다가갈 수 있었다.

본 연구자는 반인반수의 이론적 배경에 대한 연구와 상상의 동물과 식물의 상징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하이브리드 이미지’ 작업을 구축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식물이 지닌 양면적 모습을 보며 느꼈던 본인의 감정이 동물 형상과 결합되어 ‘하이브리드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따라서 단순했던 초기 작업과는 다른 표현방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자는 작품을 연구하면서 ‘하이브리드 이미지’의 그로테스크한 형상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하게 되었다. 그러나 볼펜이라는 재료를 발견함으로써 형상 표현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다. 볼펜의 펜촉은 본인이 원하는 거칠고 딱딱한 질감 표현과 부드러운 질감 표현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재료였다. 그리고 사용 후 건조가 빨라 여러 번 덧칠 과정을 할 수 있었으며 그로 인해 ‘하이브리드 이미지’의 형상을 잘 드러낼 수 있었던 것 같다. 또한 단순한 패턴에서 탈피하여 그로테스크함을 지닌 이미지로 표현하게 되었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이미지’는 마치 살아서 꿈틀거리는 생명체처럼 느껴졌으며, 연구자에게 현실 속 속박과 제약에서 벗어나 초월적인 자유와 상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자는 작품 연구를 통해 작품의 주제가 되는 생명체와 신화 속 반인반수 형상에 대하여 통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연구자의 상상력과 시각의 폭 확장 시킬 수 있었다. 앞으로 생물의 형상의 조합을 바탕으로 만든 ‘하이브리드 이미지’ 연구는 앞으로도 진행해 나갈 것이며 상상력과 시각의 확장을 통하여 새로운 ‘하이브리드 이미지’를 만들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구미래. (1992). 『한국인의 상징세계』 . 서울: 교보문고.
- 김태정. (1990).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꽃 백가지』 . 서울: 현암사.
- 니콜라스 J. 손더슨. (2002). 『동물의 영혼』 . 강미경 옮김. 서울: 창해.
- 베로니카 이온스. (2003). 『이집트 신화』 . 심재훈 옮김. 서울: 범우사.
- 수잔네 파울젠. (2002). 『식물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 김숙희 옮김. 서울: 풀빛.
- 윤열수. (2010). 『신화 속 상상동물 열전』 . 서울: 한국문화보호재단.
- 하이브리드미래문화연구 편저. (2012). 『하이브리드 스펙트럼』 . 서울: 성균관 대학교출판부.
- 하이브리드 컬처 연구소 편저. (2008). 『하이브리드 컬처』 .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 기타자료

- 차윤수. (2013). 『신화를 모티브로 한 하이브리드 캐릭터 이미지 분석 연구』 . 경기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3. 인터넷자료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71048&cid=42028&categoryId=4>

2028. 크로스오버.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63756&cid=42107&categoryId=42107>.

컨버전스. 『네이버 지식백과』



ABSTRACT

Hybrid images that form from combining flora and fauna

Kim, Jae-Woong
Major in Contemporary Art
Dept. of Painting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Nature has been a space of life and death for all living creatures. Nature's circulation through life and death is a phenomena that occurs across time and place and living creatures cannot overcome this physically. Therefore, living creatures have evolved through generations in an attempt to adapt to nature.

Living creatures, from ancient to today, have adapted to natural environment through evolution and have acquired physical features for survival. Sharp teeth and claws of carnivorous predators for hunting and gills and fins of fish and amphibians for aquatic life are examples of how evolution has optimized their physical characteristics for sustained occupation of their surroundings.

For ancient people, physical features of animals had been a source of both fear and desire, and their inhuman qualities served as medium through which man can overcome his physical limits and enter into psychological and spiritual utopia. Such desires have created half-human,

half-animal creatures.

The form of half-man, half-animal may be seen as representations of ancient people who desired to possess physical features of animals. Such desire for animal resemblance has been a topic of research. This paper studies the imaginary entities that were created as a result of aspirations of ancient people that had persisted for a long period of time in the past. As such, this study sought to portray 'hybrid images' based on study of half-man, half-animal mythology.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significance of half-man half-animal as symbolic entities in myths, and then analyzes symbolic significance of mythical plants and animals that become the basis of this work. As a result, these creatures were found to have different meanings and significance across time and cultures. Based on his analysis, the researcher has expressed 'hybrid images' as combinations of certain flora and fauna.

The drawings of 'hybrid images' that appear on the work are combinations of flora and fauna and are represented to have hybrid disposition. These 'hybrid images' represent human aspiration to overcome physical limitations of man and reality, and transcend into supernatural entity.

'Hybrid images' have allowed the researcher to escape the cognitive constraints and freely imagine outside of the framework. The resulting 'hybrid images' in this work emerges as having abstract shapes. This paper assumes examination of theoretical background underlying the work followed by analysis of researcher's work. This process would provide an opportunity to further develop researcher's works of 'hybrid 'images' by allowing the researcher to expand and develop his thoughts and viewpoints.

【Keywords】 hybrid, myth, image, plant, animal